

인기높은 《꽃망울》 식료품들을 생산하여

— 평양어린이 식료품공장에서 —



평양어린이 식료품공장은 온 나라의 어머니들이 관심하는 공장이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우유와 에기젯

가루를 비롯한 맛 좋고 영양가는 식료품들은 입산도, 에기머머들속에서 인기

를 도입하였다. 제품의 위생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추진한 결과 공장의 공

유유생산공정, 에기젯가루 생산공정 등 여러 생산공정이 식

내용에 이어 콩팍티드유유가루, 키크기압가루, 물고기뼈가루, 스프롤리나 콩유유가루와 같이 어린

이들의 성장발육에 좋은 기능성식료품들을 개발하였다.

지난해에만도 공장에서는 현팔레트드유로, 프록토올리교당다시마단독을 비롯하여 6종에 10여가지의 기능성 어린이식료품을 개발하여

내놓았다. 이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들은 지금 각지의 산원들과 육원, 육아원은 물론 육류야동병원, 락아소유치원 물자공급소들에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몇해전 12월 어느날 이 공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의 당이 특별히 중시하는 공장, 온 나라 어머니들의 각별한 관심속에 있는 평양어린이 식료품공장의 모든 생산공정을 현대화함으로써 우리 어린이들에게 세상에 제일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을 안겨 주

자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이에 무한히 고무된 공장과

련판단위의 과학자, 기술자, 종업원들은 10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현대적인 설비

를 갖추어놓고 원료 투입으로부터 생산, 포장, 보관, 운반에 이르는 모든 공정을 현대화함으로써 로

력을 극력 절약하면서도 생산능력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는 현대적인 공장으로

전변시켰다. 공장의 차성남기사는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제품분

사체까지 세워놓은 공장에서는 어린이식료품들을 더 많이, 더 질 좋게 생산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에서는 공유유생산공정에 초고온살균방법을 도입하여 살균효과를 높였으며

잔비지분리기와 전압주파수안정기를 설치하여 생산능력을 거의 2배로 높

이였다. 이와 함께 자체의 힘과 기술로 공유유용기세척용 로

보트를 제작하여 생산성을 높인것을 비롯하여 수백여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

을 내놓았다. 공장에서는 어린이들의 성장발육에 좋은 에기젯가루와

암가루, 영양죽, 케피르, 콩신젯을 비롯한 수십여가지의 식

료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공장의 연구집단은 어머니젯과 어린이들의

체질과 생리적특성, 그리고 수입젯가루를 분석한데 기초하여 젯가루제품의

수요 높은 제품들

늘어나는 로동자발명가, 창의고안명수들

공화국 각지에서 과학기술학술연구가 새창에 일어

번지는 속에 로동자발명가, 창의고안명수들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 있다. 올해에 들어와서

만 320여명의 로동자들이 학위학직증서, 발명증서, 창의고안증서를 수여받았다. 만경대경홍식료

품공장, 화대방산의 로동자들도 이곳 광부들은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여

능률 높은 질량추진체계를 개발하고 광차바퀴의 수명을 늘

린수 있는 새로운 기술혁신안을 창안도입함으로써 광물생산에

이바지하였다.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원료의 국산화

현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고 생산공정의 무인화, CNC화에

해의 동토소감

내가 조선대학교를 졸업하고 낯설은 군마당에서 교편을 잡은지 옅은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학생들이 나의 가슴에 《선생님》 칭호를 달아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10년세월 교육자로서 몇몇이 살아갈수 있는것은 이곳 동료들의 《손맛》 덕택이라고 말할수 있다.

동료불고기가게에 초대하여 맛있는 음식도 먹어주고 왼쪽을 갈 때면 진수성찬 파밭도 해주곤 하였으니 동료들의 그 《민음의 손맛》들에 떠받들려 부끄럽지 않은 조선학교 교원으로 크게 성장할수 있었던것이다.

뿐만아니라 같은 동네에 사는 동료들이 반듯하게 수고가 많으며 반찬을 들고 집까지 찾아와 줄 때도 있었고 어떤 동포 어머니는 로리만드는 법도 배워주었으니 솜씨가 서툴다고 로리를 멀리하던 내 가슴에도 불이 일어 부여에 서는 일이 많아졌다.

그 덕분에 우리 민족음식을 할 줄 아는 조선녀성으로, 소년단원들 못지 않게 《향상준비》 할수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돌이켜보니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또 하나의 《손

손맛

맛》이 있다. 그것은 우리 학교 학생들의 《손맛》, 국어시간에 쓰는 《손맛나기》들이다. 학생들 손에 지그시 쥐어 쓴 펜에서 나오는 글들은 늘 깨달음과 새 발견을 주며 때로는 깨끗하게 살라고 나에게 채찍질을 해주곤 한다.

그 글들에 담겨진 개성적인 《손맛》들은 아이들과 함께 글을 다듬는 과정에 더욱 뚜렷이 맛볼수 있다. 어머니에게 드릴 편지를 쓰면서 훌륭한 자책의 눈물, 시깃기속제를 하다가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듣고 간직하게 된 우리 학교의 귀중한, 자기 학급동무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 앞날에 대한 아름다운 꿈...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인생의 맛》을 하나, 들배위갈 때마다 나는 또 래일 《인생의 원고지》에 씌여질 그들만의 이야기를 그려보곤 한다.

학생들에게 《민족의 맛》을 불이게 해주는것은 나의 본분이며 그것 또한 동료들의 고마운 《손맛》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다.

군마조선초중급학교 교원 김영희 (총련 《조선신보》 2019년 10월 2일부에서 게재)

색깔 곱고 질 좋은 《철쭉》 양말

일이 좋을뿐아니라 무늬 또한 아름답고 다양하여 인민들이 즐겨 리용하는 《철쭉》 양말은 평양양말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

공화국에서 진행된 여러 전람회들에서 최우수상을 수여받은 《철쭉》 양말은 지금 그 형태와 색깔, 무늬가 더욱 개선되어가고 있다.

아름다운 무지개가 비친듯 곱고 색깔이 아동양말에는 동심에 맞게 만화영화들에서 나오는 너구리, 곰, 야옹이, 곰뱀을 비롯해서 《키티》와 《뽀》도 새겨져 있다.

특히 체육인들을 위한 양말은 무지개색과 함께 유해가스, 자외선으로부터의 보호작용을 하는 명주양말, 나노은항균 양말, 참대섬유양말을 비롯한 기능성양말을 개발생산하고 있는데 이 양말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주문생산이 늘어나고 있다.

공정에서는 양말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와 세계적추세를 제품들에 반영하여 인민들이 사랑하는 명제품, 명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본사기자

조국에 드리는 녀의학자의 노래 (2)

— 평양의학대학 림상연구소 리영은실장 —

들이 연방 태어난것이다. 다시마썩락락, 다시마깨양알약, 다시마복합계양산, 다시마차, 다시마등근알약 등 10여가지의 약물은 어느 것이나 할것없이 녀성의학자의 반생의 심흔이 바쳐진 고심어린 창조였고 희열이었으며 인생의 보람이었다.

하지만 연구결과가 빛을 보기 전까지 남다른 우여곡절을 겪어야 하였다. 축적한 분석자료를 한창한 장 썰치며 번민도 많이 하

고 논문도 삼켜야 했던 나날들은 동서해의 수천리로정우에 새겨진 무수한 자욱마다에 잊지 못할 사연들과 함께 수놓아져있었다.

머나먼 출장길에서 부지런히 채집한 시기별, 품종별 다시마를 가지고 실험으로 낮과 밤을 보냈지만 언제 한번 힘든 내색을 하지 않은것이다. 그를 힘겨울게 한것은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 연구과제수행에 드는 원료와 자체, 실험

기구들뿐이 아니었다. 제기되는 난관들중에는 그의 연구사업에 힘을 주지 못할정 다른 나라들의 최신연구자료들을 열거하며 현실적의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일부 사람들의 그릇된 처사도 있었다. 이 부문에서 제노라 하던 그들과 오래동안 학술적론쟁도 하여보았지만 이들은 실험자료를 들추면서 한사코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 리영은은 구내공원의 소로길을 천천히 걸었다. 그가 겪고있는 심리적고충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새들이 제멋대로 무성히 꽃피우며

로 슬레잡아하며 날아다니기도 하였다. 그는 돌의자에 맥없이 앉았다. 아이, 나는 어찌해서 그들에게 따끔히 말해주지 못했는가. 이 연구 중 자는 어머니수령님께서 주신것이라고, 수령님께서 여러 로작들에서 다시마를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리용할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주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책상이라도 치면서 내 하고싶은 소리를 다 했어야 하는건데... 《실장선생, 서투른 창조보다 확실한 모방이 낫다는 말이 있소. 이제라도 방향을 달리하시는것이 어떻겠소.》 이것이 과연 진실의 목소리였던가. 며칠째 잠을 자지 못하고 정신적피로가 쌓

어 실험도중에도 비현실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시간이어서 별로 깊이 연구해보지 못했지만 확실히 문제가 있었다. 이러저러한 생각에 얽매었던 리영은은 곁에서 울러오는 발자욱소리조차 의식하지 못하였다.

《영은선생의 얼굴색이 좋지 않구만.》 하는 소리가 머리에서 울러오자 그는 깜짝 놀라 일어섰다. 《저...》 서투를 댔으나 무슨 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였서는 리영은을 측은한 눈길로 바라보던 병원책임군은 돌의자에 그를 앉혔었다. 《나도 방금 이야기 들었소. 영은선생, 신심을 잃지 마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다시마 수령님께서 미역과 다시마를 가지고 인민들의 건강에 좋은 약물을 연구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무엇이 두려울게 있었소. 힘을 내오.》 리영은의 눈에 눈물이 왈칵 솟구쳐올랐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연구를 지지해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있는데야 내 무엇을 주저하랴. 나의 열정 강그리 바쳐 기여어 인민들의 건강에 좋은 다시마약품을 완성하리라. 그는 다시 연구사업에 뛰어들었다.

안창준



리영은실장(오른쪽)과 그가 개발한 약품들의 일부

